

전 남

전남 5개 지자체 행안부 '생산성 대상'

고흥군과 보성군, 신안군이 최근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 공동 주관의 '제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 으뜸 행정상' (정성사례)을 수상했다.

사업타당성 철저 분석 낭비 줄여

고흥군 ' 으뜸 행정상'

고흥군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타당성 분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운영해 타당성 분석

을 위한 시간적·비용적 낭비요인 최소화와 함께 선심성·낭비성 예산 차단효과를 거뒀다. 비용은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생산성 향상의 사고방식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각장 폐열 원예시설 연료비 활용

보성군 ' 으뜸 행정상'

보성군은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보급'으로 버려지는 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원예시설 연료비 절감과 지열을 통한 냉·

난방비 절감효과를 거뒀다. 생산 원가와 운영비 절감효과는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에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에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자원 친환경 생태 메카 육성

신안군 ' 으뜸 행정상'

신안군은 '섬에 생명을 불어넣는 환경정책과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운영'을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내 갯벌의 가치

를 인정받는 성과를 올렸다. 1004개의 섬과 378km의 갯벌 등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채 방치된 자연자원을 주민과 함께 깨끗한 친환경 중심의 자연생태 메카로 육성했다.

효율 재정운용 지역 생활여건 향상

광양시 '회장상'

광양시(20만명 미만 도·농복합시)는 모두 11개 범주에 63개 세부지표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선진 자치행정 구현과 효율적

재정운용, 지역 생활 여건 향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은 광양시정 운영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국 5만명 미만 군단위서 1위

장흥군 '회장상'

장흥군은 전국 5만명 미만 군(郡)단위에서 ▲선진자치행정 구현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 ▲지역소득기반 강화 ▲지역공간 개

선 ▲지역 생활여건 향상분야 등 정량·정성평가 종합 총점이 가장 높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장흥군의 행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순천에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 1호점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공동 판매하는 판매장 1호점이 3일 순천시 장천동에 문을 열었다. 순천시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공동 판매장은 관내 사회적기업 15개소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먹거리와 수공예품, 한방제품 등을 판매한다.

황토방서 말린 광양꽃감 주문 쇄도

백운산 고산지대 재배 맛·당도 뛰어남

광양 백운산 기슭에서 생산된 꽃감이 뛰어난 당도와 맛으로 수도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백운산을 중심으로 고산지대 900여 농가가 만든 '광양 황토대봉 꽃감'이 최상의 기후에서 재배 및 건조시설로 타지역에 비해 당도가 뛰어나 수도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광양지역 꽃감농가들은 1000ha에서 저농약으로 대봉감을 재배해 꽃감으로 가공, 연 90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진상면 400여 농가(461ha)는

지난해 꽃감 33억원, 생감 64억원, 단감 42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면 꽃감은 대부분 백운산 끝자락 고산지대 해발 200m 이상 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기온차가 심하고, 친환경 지역에서 생산해 당도와 맛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타지역에 비해 당도가 뛰어난 이유는 11월초에 본격적인 수확하고, 최신 건조시설 및 황토 온돌방에서 마지막 숙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특히 황토로 채운 건조실에 편백나무로 바닥을 처리한 곳에서 50여일 자연 건조한 후 황토 온돌방에서 숙

성한 뒤 다양한 가격대로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

이현상(75) 진상 운화농원 대표는 "교육공무원 시절 대봉 감나무를 1.2ha에 1500주를 심어 은퇴후 감농사를 본격 시작해 이제는 꽃감으로 연 1억여 원의 소득을 올린다"면서 "처음엔 전국 꽃감 주산지 등을 돌아다니며 꽃감가공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더 발전시켜 최상의 건조 과정을 연구해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김병호 과장은 "광양시가 선진지 견학과 교육 등을 통해 꽃감 가공과 건조기술을 습득시킨 후 생산 판매시보다 3배이상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손자·손녀들 재롱 보며 행복한 하루

보성 문덕초등학교

어르신 공경 학예회

보성군 문덕초등학교(교장 김용국)는 최근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공경 학예회' <사진>을 개최했다.

'함께 웃고 행복해요'를 주제로 한 이번 학예회는 재학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가락을 시작으로 오카리나 연주, 영어 노래, 율동, 피아노 독주, 민요, 연극, 개그, 수박치기(무예) 등 다양한 재능을 선보였다.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된 밴드 공연을 비롯해 방과후 학교 감산곡 교사의 판소리 한 대목 '배 띄워라'와 '진도어리랑'은 눈길을 사로잡았다. 마지막 무대는 전교생 39명이 민요



'농부가'를 부르며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라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큰절을 해 갈채를 받았다.

염태형 변민화장은 "보릿고개를 이겨내며 살림을 일구고, 자녀 교육을

시키느라 평생을 힘겹게 보낸 노인들에게 큰 위안이 된 행복한 학예회 잔치였다"고 말했다. 선병이 학부모회장도 "학생들이 멋지게 발표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보성=김홍백기자 kzb@

여수시 '상복 터졌네'

물가관리 최우수상 이어 자원봉사센터 우수상

여수시가 올해 상복이 터졌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상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과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추진, 물가안정 우수시책, 노력도 등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으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상수도로·쓰레기 봉투로·정화조 청소료 등 지방공공요금 4종의 동결을 유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 ▲외식업 육의 가격표시제 ▲개인서비스업 물가관리 책임관제를 통한 가격 감시 ▲가격 쟁! 맞쟁! 착한 가격업소 확대 및 SNS홍보 ▲주부 모니터 운영 등을 통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으로 박람회 성공개최에 일조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에 지방 공공

요금 안정관리로 1억5300만원을, 하반기 지방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수상했다.

또 '여수 박람회 성공은 자원봉사자의 힘'이라는 모토 아래 박람회 기간 동안 민·관이 하나가 되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밤을 새워 봉사한 점이 인정돼 매년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도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과 박람회를 통해 구축한 자원봉사 인프라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제일의 자원봉사 도시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경부에서 실시한 '기업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의 국비 보조비를 5% 상향지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강진군 59억 들여 마량방조제 개량복구

지난 8월말 태풍 '볼라벤'의 상륙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진군이 마량방조제 개량복구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진군은 태풍피해 재발을 막고자 총사업비 59억5000만원을 투입해 마량방조제의 항구적인 개량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800m 전체 구간의 방조제 단면을 개선 보강하고, 전기 단전으로 무용지물이 됐던 배수펌프장에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제방의 안정성을 확보,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마량방조제는 태풍 '볼라벤' 상륙당시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 방조제 석축과 파라펫 400m가 유실됨에 따라 강진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가 제방의 추가 훼손 및 유실을 막기 위해 포크레인 등을 긴급 투입해 응급 복구를 실시한 바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세 일 글

"현장치안... 안전한 바다 만들겠다"

이성형 여수해양경찰서장



"바다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국민을 위한 해양치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일 여수 해양경찰서장에 부임한 이성형(58) 신임 서장은 "철저한 현장중심의 업무를 통해 가장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또 "대국민 민원서비스 철저는 물론 끈끈한 동료애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서로의 가치를 높이는

멋진 해양경찰이 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고흥출신인 이 서장은 광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9년 순경으로 해양경찰에 취업포부를 밝혔다. 또 "대국민 민원서비스 철저는 물론 끈끈한 동료애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서로의 가치를 높이는

Large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tours. Features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Mystery Island 'Jeju Exploration' Tour) with various packages. Includes details about flights, hotels, and prices. Also mentions '제주도 골프투어' (Jeju Golf Tour) and '해비치+세인트포기존' (Habitat+Seintpo Existing). Contact information for '환상제주' (Fantastic Jeju) is provided at the bottom.